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관

최용준(한동대)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낳은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관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전되어왔는지 역사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고찰하고 있다. 카이퍼의 최초 및 최종적인 저작이 둘 다 교회관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교회론은 그의 신학의 핵심을 이룬다. 결국 그는 당시 네덜란드 개신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돌레안치(Doleantie:애통)"라고 불리는 운동을 주도했다. 그의 사상적, 영적인 순례는 근대 자유주의에서 윤리적-중도 신학적 입장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철저한 개혁주의로 바뀌었지만 그 가운데 연속성도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기체로서의 교회관' (the church as organism)이다. 그는 전반기에는 유기체적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로 간주하였으나 후반기에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를 교회의 '가시적 유기체'라 불렀다. 그의 이러한 교회관의 발전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고 현대 한국 교회의 상황에 적용, 평가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아브라함 카이퍼, 유기체로서의 교회, 제도적 교회, 교회의 개혁,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성

I. 서론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낳은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과 깊은 경건을 겸비한 목사요, 대학 설립자 및 신학 교수였으며, 교회 개혁운동의 지도자인 동시에 저널리스트였고 또한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정치가였다. 특별히 당시 네덜란드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기 위해 소위 ‘돌레안치(Doleantie: 애통)’¹⁾라고 불리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당시 교회의 타락한 모습에 마음 아파하면서 개혁에 헌신한 그의 중심을 잘 보여준다.

현대 한국 교회 또한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필자는 카이퍼가 오늘날 한국에 있다면 다시금 애통해 하면서 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개혁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분명 한국 교회는 바르게 개혁되지 않으면 급격히 쇠퇴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카이퍼의 교회관이 어떠했기에 당시 네덜란드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사상적, 영적인 순례를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는 처음에는 근대 자유주의에서 윤리적-중도 신학적 입장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철저한 개혁주의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적 발전 가운데 연속성 또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유기체로서의 교회관’ (the church as organism)이다. 카이퍼의 교회론은 그의 신학의 핵심이요 유기체로서의 교회관은 그의 교회론에서 심장부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판 덴 베르그는 이 “유기체론”이야말로 카이퍼의 교회관뿐만 아니라 인간관, 사회관 등 그의 신학 사상 및 세계관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 개념이라고까지 주장한다. (C. H. W. van den Berg, 1980: 143)

카이퍼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하면서, 전반기에는 제도적 교회를 가시적 교회로, 유기체적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로 간주하였으나 후반기에는 이와 달리 교회의 본질은 비가시적이나 여러 형태로 가시화되는데 크게 제도적 교회와 유기체로 나누었다. 제도적 교회란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중생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곳이며, 유기체로서의 교회란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의 교회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요인 및 그의 교회관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저작들을 간단히 언급한다면 아래와 같다. 우선 레이든 대학의 스톨텐(J.H. Scholten), 라우언호프(Rauwenhoff) 교수 등에 의한 자유주의적인 배경 및 쉘링, 헤겔, 스트라우스, 슬라이에르마허 등에 의한 19세기 독일의 철학 및 신학 사상 등이고, 둘째로는 1860년 10월 11일 호로닝엔 대학 현상 논문에 당선된 「칼빈과 아라스코의 교회관 비교 연구」이며, 셋째로는 1862년 9월 20일 위 논문으로 레이든 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 받은 것이고, 넷째로 영국인 소설가 샬롯 영(Charlotte Yonge)의 소설 「레드클리프의 상속자(The Heir of Redclyffe)」 (1853), 다섯째 그의 첫 목회지인 베이스드(Beesd)에서 경건한 칼빈주의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체험, 여섯째, 확신(Confidentie)이라고 하는 그의 회심 과정 및 교회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한 소책자이고, 일곱째로 그의 교회 개혁안 (Tractaat van de Reformatie der Kerk), 여덟째, 1886년부터 1897년까지 진행된 교회 개혁 운동(Doleantie)에 의해 네덜란드 개혁교회(Gereformeerd Kerk)가 탄생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퍼가 자유대학 신학부에서 강의한 조직 신학을 출판한 책인 조직 신학 강의록(Dictaten Dogmatiek)을 들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로 카이퍼의 교회관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지 역사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고찰, 평가하고 이를 현대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후술하겠다.

II. 본론

카이퍼가 올바른 교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였음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어릴 때부터 당시 네덜란드의 국가교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Kuyper, 1873: 35) 나아가 그는 교회의 개혁이야말로 그의 전 생애의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영적, 지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고백한다.

무엇보다 먼저 카이퍼의 최초 및 최종적인 저작이 둘 다 교회관을 다루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전자는 그가 1859년에 쓴 논문으로 “니콜라스 1세 치하에서의 교황권의 발전(De ontwikkeling der Pauselijke macht onder Nicolaas)”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그의 역사관 및 교회관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당시 관념론적 철학의 영향으로 역사를 어떤 특정한 이념의 실현으로 보았다. 판 덴 베르그에 의하면 카이퍼는 19세기 독일의 관념론뿐만 아니라 17세기의 개혁주의적인 스콜라주의(gereformeerde scholastiek)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령 그의 교회론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원론적 구분, 즉 관념/본질 및 현상/형식, 본질 및 실존/실재, 내적 및 외적, 영적 및 육적, 비가시적 및 가시적, 존재/생명 및 의식, 잠재/가능성 및 실현/현실 등은 이러한 영향을 잘 보여준다. (C. H. W. van den Berg, 1980: 142-3) 따라서 교회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는 어떤 고정되고 일정한 발전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교회도 단지 “종교의 잠정적인 기관(tijdelijk orgaan der godsdienst)”으로 보았다. 그의 최종 저작으로 기획했던 것으로 그가 창간했던 주간 신문인 ‘드 헤라우트(De Herout)’에 교회에 관한 논문을 계속 기고했으나 1920년 11월 별세하여 완성되지 못했다.

1. 박사학위 논문: 아 라스코의 영향

카이퍼는 1873년에 쓴 소책자 ‘확신’(Confidentie)에서 그가 교회 문제 (Kerkelijk vraagstuk)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및 그의 회심동기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첫째는 그가 흐로닝겐 대학 신학부 현상 논문으로 썼고 이를 수정 증보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칼빈과 아 라스코의 교회관 비교 연구」였다. 여기에 이미 그의 ‘유기체적 교회관’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카이퍼는 칼빈의 교회관보다 폴란드의 개혁교회 신학자였던 아 라스코(John a Lasco)의 내재적 교회관 즉, 교회란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임재하시는 신자의 모임이 더 순수한 종교 개혁적 입장이라고 보았다. 카이퍼가 생각하기에 칼빈은 아직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아 교회를 위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의 제도(institution)로 보았으며 신성과 인간내의 어떠한 접촉도 없이 단지 외부적인 구원의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아 라스코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기원하는 자유로운 교제’로 간주하면서 신자들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 생활의 원리라고 보았기에 칼빈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아 라스코의 교회관은 ‘유기적’이고 칼빈은 ‘제도적’이라고 카이퍼는 본 것이다. 따라서 본 학위 논문에 이미 카이퍼의 ‘유기체’ 개념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카이퍼는 그의 학위논문 서문에서 먼저 자신이 헤겔, 스트라우스 및 로테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Kuyper, 1862). 그가 당대의 신학 및 철학 사상에 대해 지나치게 수용적이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확고한 사상적 지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 레우언(Van Leeuwen)은 분석한다. (Van Leeuwen, 1946: 48)

이 ‘유기체’ 사상은 19세기 유럽 지성사의 주된 흐름으로 신적인 내재 사상 및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판 레우언(Van Leeuwen)은 이러한 사상이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특히 셸링(Schelling)의 자연 철학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원래 이 ‘유기체’ 개념은 생물학적 용어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엔텔레키(entelechie: 그 자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사상에서 유래했다. 즉 유

기체는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를 형성하며 그 자체가 생명의 원리를 가져 그 내적인 힘으로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기체란 하나의 잠재성을 가진 생물이 완전히 자라는 것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도토리 안에는 장차 도토리나무가 될 모든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튕립 구근 안에는 나중에 튕립 꽃이 필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기체’라는 개념은 ‘진화’, ‘내재’ 및 ‘성장’이라는 개념들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 즉 모든 유기체에는 전체가 부분 안에 내재되어 있고 부분의 성질은 전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19세기에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마허 및 로테는 당시 다른 신학자들과 함께 이 용어를 교회에 적용시켰는데 카이퍼는 다시 이를 전통적인 개혁신학 중 교회론에 접목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Van Leeuwen, 1946: 117-120).

2. 레드클리프의 상속자(The Heir of Redclyffe):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역할

카이퍼가 교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두 번째 계기는 영국의 여류소설가 샬롯 영(Charlotte Mary Yonge)의 소설 ‘레드클리프의 상속자(The Heir of Redclyffe)’³⁾를 읽고 받은 감명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는 두 주인공 필립 드 모르빌(Phillip de Morville: 세속 지향적 인간)과 거의 경(Sir Guy: 신앙 지향적 인간)이 대조되면서 영국 교회(Anglican Church)가 그 성도들에게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카이퍼는 이 작품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의 이상적 형태가 무엇인지도 자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⁴⁾

여기서 특히 그가 감명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성례, 가정 및 공적 예배의 확실한 형식, 감동적인 예배 프로그램, 그리고 영국 교회가 ‘기도서’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는 점이었다. 나아가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도 나중에 칼빈의 영향과 더불어 카이퍼의 교회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 또한 카이퍼의 ‘유기적’ 교회관을 더 강화시켜 주는 체험이었다. 이처럼 한 권의 소설이 한 사람의 생각에 이토록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탁월한 작가 한 명이 깊은 통찰력으로 쓴 문학 작품이 교회를 개혁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베이스드(Beesd)에서의 첫 목회: 칼빈의 영향

카이퍼가 교회 개혁에 관해 헌신하게 된 세 번째 경험은 그의 첫 목회지인 네덜란드 중부의 한 작은 마을 베이스드에서 무명의 성도들이 철저하고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받은 깊은 감동 때문이었다. 그는 초기에 자유주의적 신학 사상을 가지고 목회했으나 특히 발투스(Pietje Baltus)라는 한 평범한 여성도의 비범한 경건에 큰 감명을 받아 칼빈주의로 회심하게 되었다. 그 후 카이퍼는 이런 경건 생활이 가능한 것은 칼빈이 확고한 조직을 통해 교회를 설립하여 유럽 및 해외의 많은 신자들에게 축복과 평화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한 점이 카이퍼에게는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소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이퍼가 교회 개혁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교회의 조직적 형태를 개혁할 때만 기독교의 부흥에 직접적이

2) 그러나 카이퍼는 우주의 목적지향성,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도원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진화론은 비판했다.

3) 591페이지에 달하는 신앙소설. 카이퍼는 이 책을 그의 *Confidentie* 39-43에서 요약하고 있다. 이 책은 카이퍼가 현상 논문에 당선된 후 건강이 악화되어 10개월간 독일에서 휴양하면서 읽었다.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Mother church, the mother who had guided each of his steps in his orphaned life. (어머니 교회, 고아와 같은 삶에서 한 걸음씩 인도했던 어머니)” 카이퍼는 여기서 칼빈이 기독교강요 4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교회를 어머니로 묘사한 것을 회상한다. *Confidentie*, 48.

고도 심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이 카이퍼의 경험을 통해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 및 종교개혁가와 함께 무명의 한 평신도 또한 교회 개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과 카이퍼의 교회관에는 상이한 점도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카이퍼는 ‘제도로서의 교회’라는 이미지를 단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위한 외부적 조직 형태 또는 확실한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는데 반해, 칼빈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외부적인 수단’이라고 보면서 신자들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교회밖에는 사죄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John Calvin, 1960: vol. 2, 1011-1012, 1016)

4. 위트레흐트(Utrecht) 교회 취임 설교 및 목회: 제도적 교회에 대한 관심의 증대

1867년 11월 10일 카이퍼는 두 번째 목회지 위트레흐트의 돔교회(Domkerk)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 교회 생활의 원리 (De menschwording Gods: het levensbeginsel der kerk [God became Man: the Principle of Life for the Church])”라는 제목으로 취임 설교를 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였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내재성 및 역사의 진보와 발전의 법칙을 강조하면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이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으며 모든 인류는 하나의 몸, 즉 유기체이므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모든 인류에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므로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양분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영역이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친다고 했다. 이 설교에는 아직 자유주의적 영향이 남아 있으나 그가 나중에 발전시킨 ‘영적 대립(antithesis)’ 및 ‘전 우주의 재생(palingenesis 또는 regeneration)’ 교리의 맹아를 엿볼 수 있다.

카이퍼는 이 시기부터 제도로서의 ‘가시적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비가시적 교회’를 분명히 구분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아 라스코의 견해에 대해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오히려 칼빈의 견해를 좀 더 수용하면서 제도적이고 외형적인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네덜란드 국가 교회(Hervormde Kerk)가 안고 있던 자유주의적 신학 및 돌트 신경을 떠난 교회 정치 및 중앙집권화 된 행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한 실천적 동기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⁵⁾

5. 암스테르담(Amsterdam) 교회 취임 설교 및 목회: 유기체 및 제도로서의 교회관

1870년 8월 10일 카이퍼는 그의 세 번째 목회지였던 암스테르담 교회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유기체 및 제도로서의 교회(Geworteld en Gegronde: De Kerk als organisme en als instituut)”라는 제목으로 취임 설교를 했다.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였다. 여기서 그는 아 라스코와 칼빈의 교회관을 결합하여 ‘유기체 및 제도로서의 교회관’을 더욱 발전시켰다. 즉 교회는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 뿌리를 내렸고 싹이 나서 자라는데 이러한 유기체적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라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카이퍼는 교회가 제도로서 터가 굳어졌다고 하면서 이 유기체와 제도는 교회의 본질과 형식으로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머니로서의 교회상’도 더욱 발전시켜, “[유기체적] 교회의 태중에서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

5) 3년이 채 안 되는 위트레흐트(Utrecht)에서의 목회 기간 동안 카이퍼는 교회 문제에 관해 6개나 되는 소책자들을 출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고 [제도적] 교회의 돌봄으로 우리가 양육함을 입는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 개혁에 관해 그는 교회가 비진리에 항거할 뿐만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설교에서 그는 영원한 선택 교리가 교회의 생명이 되는 원리라고 천명했다. 즉 영원전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그의 성숙한 유기체적 교회관의 근거가 되었다. 이후부터 예정론이 그의 사상을 지배하게 되어 그는 심지어 교회의 핵심(*cor ecclesiae*)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택자들에 대한 예정이라고 주장하여 예정론이 정통 개혁신앙의 출발점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라고 보았다. (Kuyper, 1883: 48) 즉 영원전부터 교회가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유기체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카이퍼의 유기체적 교회관이 제도성에 의해 보완되고 예정론과 연결되면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⁶⁾

6. 확신(Confidentie): 교회 개혁의 필요성 및 이상적 교회관 제시

전술한 바와 같이 카이퍼는 본서에서 그의 회심 과정 및 교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세 가지 사건, 즉 그의 학위 논문, 샬롯 영의 소설 그리고 베이스드에서의 목회를 언급한 후 교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밝히면서 개인, 교회, 가족 그리고 국민생활의 욕구가 교회의 재생 및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Kuyper, 1873: 49-63) 결론적으로 카이퍼는 당시의 국가교회를 “파선된 배”에 비교하면서(Kuyper, 1873: 103f) 그 본격적인 대안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그에 의하면 교회는 개혁주의적(*Gereformeerd*), 민주주의적(*Democratisch*), 자율적(*Vrij*), 그리고 자립적(*Zelfstandig*)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카이퍼가 당시 네덜란드 국가개신교회가 돌트 신경의 교회 정치에서 벗어난 점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권위주의화로 인해 카이퍼가 ‘작은 사람들(*kleine luyden*)’이라고 불렀던 일반 성도들의 의사가 거의 반영될 수 없었던 점들을 개혁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부터 카이퍼의 실제적 교회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카이퍼는 교회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잘 조직된 목회 즉, 가르치는 사역(*Leerdienst*: ministry of Word 여기서 카이퍼는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배(*Eerdienst*: Worship service 즉, 설교, 성례, 기도, 찬송 등) 그리고 사랑의 수고, 즉 선교 및 구제(*Liefdedienst*: missions and philanthropy)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uyper, 1873: 63-105) 그러면서 그는 이 세 가지의 목회를 각각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시킨다. (Kuyper, 1873: 100) 이것이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교회의 개혁을 위한 소책자(*Tractaat van de Reformatie der Kerken*): 교회의 형식과 본질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국가교회 개혁을 위해 10년간 고심하던 끝에 루터 탄생 400주년 기념으로 출판한 이 책자는 그가 올바른 교회 조직관 및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년 후 돌레안치 운동에 직접 적용한 하나의 교회 개혁 교본이다. 내용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은 일반 원리, 제 2장은 교회의 올바른 형성(*rechte formatie*), 제 3장은 교회의 변질(*deformatie*) 그리고 제 4장은 교회의 개혁(*reformatie*)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먼저 교회의 ‘형식’과 ‘본질’을 엄격히 구분한다. (Kuyper, 1883: 7ff) 교회의 형식이란 가시적이며 제도화된 회중을 의미하며, 본질은 비가시적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을 통해,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9항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다.

인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제도적으로 아무리 순수하고 말씀 선포 및 성례의 집행이 이루어져도 이미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으며, 반대로 제도적으로 아무리 부패했어도 거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에 생명이 있으면 나무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카이퍼는 교회의 본질을 잠재적인 면과 실현된 면이라는 두 관점에서 본다. 전자는 교회의 본질은 있으나 아직도 직분이나 공적인 사역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모든 직분 및 은혜의 수단 등이 완비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항상 그 자체를 실제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Kuyper, 1883: 7ff) 그러나 그의 교회관도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텐 호어(F. M. ten Hoor)는 카이퍼가 교회의 본질을 그 생성 원인과 혼동했다고 주장한다. 즉 교회를 형성하는 능력을 교회의 본질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불가시적인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카이퍼의 주장은 슐라이에르마허와 윤리적이고 범신론적인 중재신학(Vermittlungstheologie)의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한다. (Ten Hoor, 1890: 11, 21, 37ff, 49, 90, 109ff, 154).

이후 카이퍼는 '돌레안치'라는 개혁 운동을 1886년에 시작했다. 암스테르담 시찰에서 일어난 일련의 갈등⁷⁾으로 인해 카이퍼를 중심으로 하는 80여 명의 목회자 및 약 30만 명의 성도들이 전국적으로 교회 조직 등의 개혁을 외치며 네덜란드 국가 개신교회에서 분리하였으며 새로운 교회의 이름을 네더다웃츠 개혁교회(Nederduits Gereformeerde Kerk)라고 불렀다. 물론 이전에도 '분리(Afscheiding)'라고 불리는 개혁운동이 1834년에 있었으나 이 숫자는 전체 교인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반면 '돌레안치'는 전체의 10%가 되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카이퍼는 처음에 1834년의 교회 '분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분리주의자들은 국가교회에 대해 어떤 삶의 원리에 근거해서 분리했기보다는 반동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분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국가교회가 완전히 타락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지역 교회에 속해있는 신자들도 그 교회가 타락한 교단에 속해있으므로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 교회가 잘못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교회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 나라에 여러 지역 교회를 가진 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개혁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 후 '분리'의 결과 생겨난 기독교 개혁 교회(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가 1869년, 그들이 국가로부터 단지 독립적인 지방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총회로서 법적인 인정을 받기 원했을 때에도 카이퍼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카이퍼는 분리주의자들과 의견이 달랐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면서도 공적 권위나 개혁에 대한 사명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이 떠나면서 기존 교회를 모두 죽은 교회로 단죄하고 자신들을 단순한 신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제도로서의 교회를 무시하여 모든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포기함으로써, 신앙고백적인 면에서는 개혁교회와 연속성을 갖지만 결국 개혁교회와 단절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제도적 교회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랜 개혁 교회와의 연속성은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카이퍼가 생각을 바꾸면서 이 분리주의자들도 진정 교회의 개혁을 원하는 중심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후 이 두 그룹이 합쳐 네덜란드 개혁교회(d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라고 하는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다.⁸⁾

7) 가령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명목적으로 성찬을 베푸는 것에 대해 카이퍼가 반대하자 노회는 그와 함께 한 회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이들은 그 노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 이러한 일단의 운동, 특히 '돌레안치' 개혁운동은 1830년대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het Réveil)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 새로운 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세운 교단이 바로 기독교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이다. (<http://www.pcca.org/books/portraits/kuyper.htm>, 2012년 3월 12일 10시 56분에 접속) 하지만 지난 2004년에 이 개혁교회는 다시 국가 개신교회와 연합하여 새로운 개신교회 교단(PKN: Protestantse Kerk in Nederland)을 이루었다. (<http://www.pkn.nl/1/info.aspx?page=6210>, 2012년 3월 12일 17시 12분에 접속) 즉 카이퍼 당

8. 조직신학 강론(Dictaten Dogmatiek): 교회의 유기체적 본질

카이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유기체적 본질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 본서(Dictaten Dogmatiek)는 카이퍼가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 신학부에서 1880년부터 1900년까지 강의한 조직신학을 학생들이 출판한 것으로 모두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교회론은 제 4권에 있으며 교회관에 대해 가장 방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Kuyper, 1905) 여기서 그는 교회의 ‘본질’과 ‘존재’를 구분하면서, “교회는 그 존재로가 아니라 그 본질을 따라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한다. (Kuyper, 1905: Vol. 4, 69) 그리고 본질은 ‘필요성’과 동일시한다. 즉 비가시적 교회의 본질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교회로서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내재적 충동(de ingeschapen aandrift)을 소유하고 있다.⁹⁾ 즉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놓여 있는데,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영원한 내재적 사역(opus immanens)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이퍼는 “교회(church: kerk)” 또는 “예클레시아(ecclesia)”는 교회의 본질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의 양식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살아있는 전체로서의 모든 인류와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원래 인류는 전 세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범죄로 인해 이러한 유기적 연합이 파괴되어 원초적 전체성이 파편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인류는 회복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마치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듯 비록 작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원래적인 유기체의 연속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는 아무리 많은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 마침내 그의 신부로 영화롭게 되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카이퍼의 유기체적 교회론이 체계화됨을 볼 수 있다.

9. 타락 전 선택설로서의 예정: 유기체적 교회론의 강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카이퍼는 타락 전 선택설로서의 예정(Supralapsarian view of predestination)을 주장함으로써 유기체적 교회론을 강화했다. 즉 교회는 창조 및 타락 전에 이미 진정한 인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의 전체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¹⁰⁾ 왜냐하면 타락 후 선택설에 의하면 교회는 진정한 유기적 통합이 없는 개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며 따라서 교회는 유기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개별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Kuyper, 1905: 32-33, 42-43)

또한 카이퍼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야말로 중생의 열매라고 주장한다. 유기체 안에 생명이 있듯이 교회의 참된 생명은 성령께서 주신 중생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연결하여 그는 또한 유아 세례를 주장한다. 유아 세례는 오직 그들이 이미 선택되었으며 성령에 의해 중생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카이퍼는 교회를 영원전부터 선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그의 신비로운 몸이 된 것으로 보며 이런 의미에서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에는 개혁을 위해 분열이 불가피했으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러한 요소들이 제거되자 다시 통합한 것이다.

9) 또한 그는 교회를 형성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 내재성(divine immanence)을 강조하는데 이는 슐라이에르마허 등 19세기 독일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0) 판 레우언은 카이퍼가 타락 전 선택설을 선호하는 것은 알버트 슈바이처(A. Schweitzer) 및 그의 지도교수 스클튼(Scholte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Van Leeuwen, *op cit.*, 137.

10.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유기체적) 교회

또한 카이퍼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한 후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로 보면서 항상 신앙적 대상이 될 뿐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가시적 교회의 특징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사도성(apostolicity)”은 부차적인 속성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가시적 교회야말로 가시적 교회의 본질이며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보편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관점 (영혼-몸)과 연결시켜 설명하면서 영혼이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진정한 본질적 부분이듯이 가시적인 교회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이퍼의 이러한 가시적/비가시적 교회의 구분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슐라이에르마허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 슐라이에르마허에 의하면 가시적 교회는 항상 교회와 세상의 혼합이어서 순수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 (Schleiermacher, 1963: 676- 678) 이러한 견해는 네덜란드의 호르닝겐 신학과 및 19세기 국가교회의 윤리적-중도적 입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카이퍼도 한때 이러한 영향 아래 있었으나 나중에는 비가시적 교회가 단지 가시적 교회의 발전을 결정하는 관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뒤에 숨어있는 실체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교회의 중요성 또한 무시하지 않았다.

11. 카이퍼의 교회 개혁안: 세 가지 유형들

카이퍼의 교회관은 궁극적으로 당시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발전된 것이다. 그의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기존 교회의 조직으로부터 단절을 통한 개혁, (2) 시찰 및 노회와 같은 상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개혁, 그리고 (3) 지체로 속해 있는 기존 교회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개혁이다. 첫째 개혁안은 단지 잠정적인 것이며 두 번째 개혁안은 영구적이긴 하나 교회 자체를 개혁하기보다는 교회간의 관계를 개혁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이야말로 가장 극단적 형태의 개혁안으로서 조직 및 다른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자체로부터의 단절을 뜻한다. 이러한 개혁은 오직 자신이 속해있는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여 완전히 거짓 교회가 되었을 때에만 허용된다. 카이퍼는 기존 교회와의 단절은 모든 개혁의 수단을 다 동원했어도 실패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했다. 그래서 그는 개혁을 ‘돌레안치’ 즉 ‘애통, 슬퍼함’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돌레안치 교회는 단지 편의상 그리고 임시적이며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형태라고 생각했다.

카이퍼가 당시 네덜란드 개신교회를 비판한 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1816년부터 국왕 빌름(Willem) I세가 [일반 규례: Algemeen Reglement]를 통해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정으로 시찰 및 노회 행정을 감독해온 것과 그 교회내의 자유주의 사상이다. 카이퍼는 이 국가교회를 거짓되거나 개혁가능성이 없는 부패한 교회로 간주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했으나 단지 정부의 간섭을 계속하여 받게 됨으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로 생각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류를 제거해 주시길 애통하면서 간구하는 것에서 돌레안치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카이퍼는 교회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겼는데 기존 교회의 모든 조직적 구조 즉 시찰, 노회, 총회 및 공적 예배에서 분리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지역 교회와 단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분리됨을 강조했다. 따라서 돌레안치는 분파(schism)와는 달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순수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12. 참 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식들(marks)

카이퍼에 의하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간의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Kuyper, 1883: 160-162) 그러나 한 특정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를 평가하는데 카이퍼는 확신이 서지 않아 실제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세 단계로 불완전한 교회를 구분했다: (1)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교회, (2)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경우 (schijnkerken) 그리고 (3) 완전히 거짓된 교회.(Kuyper, 1883: 113-114, 197)¹¹⁾ 당시 카이퍼는 암스테르담 교회와 네덜란드의 약 500개 교회가 첫 번째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은혜의 수단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며 비신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거짓된 교회 조직에 참여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므로 완전히 거짓된 교회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Kuyper, 1883: 197) 두 번째 범주로는 네덜란드 국가교회를 지적했다. 카이퍼가 보기에 네덜란드의 국가교회는 완전히 타락해서 거의 치유 불가능했다. 이미 몸은 생명이 끊어졌으나 아직 부패는 시작하지 않은 단계로 어떤 교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고 은혜의 수단이 집행되지도 않았다. 이런 교회는 단지 다른 교회들과의 연결 및 정부의 지원으로 겨우 지탱해가는 정도였다. 교회의 형태는 아직도 갖추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 이상 아니다. (Kuyper, 1883: 111-112, 197) 세 번째는 가장 부패한 적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것이며, 가장 가까운 형태가 종교 개혁시대에 한번 나타났었다고 본다. (Kuyper, 1883: 112-115, 160-161, 166)

참 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카이퍼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식(marks)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벨직 신앙고백¹²⁾ 제 29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참된 교회의 표식은 (1) 순수한 복음의 선포, (2) 성례의 집행, 그리고 (3)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다. 이러한 표식은 유기체로서의 교회보다 제도로서의 교회에 해당한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Kuyper, 1883: 168f) 나아가 그는 교회의 본질적인 표식과 교회의 안녕과 유익에 속하는 것 간을 구분했다. 칼빈처럼 카이퍼도 전자, 즉 말씀의 선포 및 성례의 집행이 가장 필수적이며, 후자는 권징으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표식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카이퍼는 개별 신자가 어떤 특정한 교단을 떠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가 부패했을 경우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아닌지 깨끗한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13. 교회의 권위: 제도적 교회의 특징

카이퍼는 제도적 교회가 주로 권위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고 보았다. (Kuyper, 1883: 41-72) 여기서 그는 세 종류의 권위를 구분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 신앙고백의 권위, 그리고 교회내의 권위로 이러한 권위를 통해 개혁주의 전통과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통일성을 추구했다. 또한 말씀과 성례, 권징, 공적 예배, 봉사 및 구제, 신앙고백, 그리고 교회의 질서 등이 제도로서의 교회의 공식 사역이라고 보았다. 즉 제도적 교회의 중심적인 사명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보양하고 도와주는 것이었다.

카이퍼가 그의 전기 사상에서 제도적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동일시했을 때에는 제도로서의 교회가 그의 교회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 당시 제도적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학교, 사회,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국가의 간섭에 대해 카이퍼는 비판하면서 교회

11) 이 기준에 의한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룰 것이다.

12) 벨기에의 종교개혁자 기도 드 브레스(Guido De Braes)가 1561년에 작성한 개신교회 최초의 신앙고백서.

의 독립성을 매우 강조했다. 제도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기체 조직으로서 다른 어떠한 인간 사회와도 다르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Kuyper, 1883: 56-59, 175) 이는 그가 암스테르담에서 1880년 자유대학교를 설립하면서 강조한 소위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 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Kuyper, 1880)

14. 교회 정치의 민주성

카이퍼는 교회의 행정 및 정치에 민주성을 매우 강조했다. 즈반스트라(Zwaanstra)는 예정론이 카이퍼의 유기체로서의 교회관을 결정짓는 요소라면 인간의 자유 원리가 제도로서의 교회관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본다. (Zwaanstra, 1974: 174) 그는 심지어 성경이 교회의 설립에 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인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Kuyper, 1873: 79)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형성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나 보이는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신자들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로서의 교회는 어느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신자들이 그들의 교제를 보다 충만하고 순수하게 갖기 원할 때 탄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제도적 교회의 형성을 위한 잠재력과 동력은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있다. 이러한 잠재력과 동력은 성도들이 스스로 제도적 교회를 세우기 원할 때 생겨난다. 따라서 제도적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형성하시는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연합을 단절할 자유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교회의 형성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지도하에, 성경말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유기적 교회는 직접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나 가시적 교회는 구성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연대 밖에는 없다. 이러한 카이퍼의 민주 정신은 국가교회에 대한 반감과 자유 교회에 대한 정당한 호감에 의해 증대되었으며 거의 독립교회주의를 주장할 정도가 되었다.¹³⁾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이며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된 유기적 통일체가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종말적 실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교회들은 모두 부분적이고 결점이 있다. 따라서 카이퍼는 지역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보에티우스(Voetius)의 견해와 동조하면서 카이퍼는 사도들이 지역 교회들을 인정하면서 계속 “에클레시아(ecclesiae)” 또는 “교회들”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교회”를 보다 광범위하게 유기적 형태의 교회 통일체적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지역 교회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시찰이나 노회, 총회 등은 그리스도의 몸의 이차적 현현이라고 보았다.

15. 유기체적 교회의 통일성(Unity)과 다원성(Pluriformity)

카이퍼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나 및 신약의 근거 없이도 교회의 다원성을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발전의 보편적 법칙 및 19세기 시대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주장하기를 신약 시대의 교회는 모든 유기체의 형태가 그러하듯 하나의 통일체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과 분리의 과정을 통과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를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다변화(differentiation)의 법칙에 종속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다양성(multiformity)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이다. (Kuyper, 1931: 63-64) 따라서 유기적으로 하나인 교회는 제도적으로 다

13) 카이퍼는 독립 또는 회중 교회 개념도 분명히 개혁주의 전통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급진적 형태로서의 독립교회제도에 대한 그의 비판에 관해서는 *Tractaat*, 49-50 참조.

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삶의 모든 영역이 다변화되던 19세기에 교회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생명의 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돌레안치 운동 이전까지 카이퍼는 제도적 교회를 가시적 교회와 동일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현현한 유일한 교회라고 보았다. 그러나 후기 사상에서는 제도적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나타나는 다른 형태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가톨릭의 영세를 인정하기 위해 카이퍼는 교회가 가시적이 되는 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리스도 자신께서 성례를 통해 가시적이 되는 것과 인간이 제도적 형태를 통해 가시화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를 가시적이며 유기적인 교회라고 부르면서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했으며 벨직 신경제 27조(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그 근거로 들었다.

교회부분을 다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제 21주일에 관해 주석하면서 카이퍼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로 설명했다. (Kuyper, 1904-1905: 121) 그러나 사탄과의 진정한 투쟁은 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족, 비즈니스 및 산업, 학문, 예술 등. 이러한 영적 전쟁은 제도적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영적 교회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교회는 요리문답에 의해 고백된 신앙의 대상이며, 제도로서의 가시적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마치 후방에 있는 군대가 최전방 전투지에 있는 군대와 다른 것과 같다. 어디서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삶 가운데 그 신앙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제도적 형태가 있건 없건 가시적 교회로 본다. (Kuyper, 1904-1905: 144-146)

카이퍼는 이렇게 제도적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가시적 교회를 '현상적 교회(ecclesia apparens)' 즉 가시적 유기체로 나타난 교회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생한 삶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불렀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에 있는 영적인 능력의 모든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들 및 효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삶의 모든 영역(개인, 가정, 국가 및 모든 문화 활동)에서 거듭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회는 재생(palingenesis)을 통해 회복된 인류(우주를 포함한)의 총체적 삶으로 이해해야지 제도적 교회로서 그 직분에 제한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Kuyper, 1909: 204, 215; *Locus de Ecclesia*, 102, 108-111) 그렇게 교회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시적 유기체로 보게 된 결과 카이퍼는 제도적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난 다양한 역사적 형태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 물론 카이퍼는 모든 가능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도적 형태의 독특성 및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즉 비록 제도적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나타난 다양한 형태들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자신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 수단이 없이는 유기적 교회가 그 힘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이퍼는 덧붙여 말하기를 교회가 단지 제도적 수단만을 통해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국 중생이란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직접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Kuyper, 1909: vol. 3, 192)

16. 한국 교회에 대한 적용

지금까지 논의한 카이퍼의 교회관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가 강조한 교회의 유기체성을 통해 한국 교회의 과도한 개교회주의를 지적할 수 있다. 카이퍼가 교회의 유기체성을 말할 때 개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지만 비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하여 전체의 유기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형 교회들과 영세한 교회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크고 재정적인 부분도 균등하지 않아 대형 교회들의 확장으로 인해 주변의 중소 교회들이 흡수되어 그 목회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유기체성의 약화’는 한국 교회의 분열과도 연결되어 반성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너무나 많은 교단, 교파 및 개교회의 분열에 의해 전체적인 연대성(solidarity)이 매우 약해졌고 각 지역 교회들 간의 불균형 및 보이지 않는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¹⁴⁾ 따라서 교회 개혁을 위해 분리된 교단들이라 할지라도 신학이 동일하다면 다시 연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최근 일부 보수적인 장로교단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좀 더 과거의 분열에 대해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세상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이미 나름대로 사역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과 함께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됨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바 있다. (최용준, 2006)

나아가 카이퍼의 유기체적 교회론은 한국 교회의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 사회는 현재 급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으나 한국 교회는 그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지역 교회들이 다문화가정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유기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노력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이민 역사가 오래되어 가지만 여전히 ‘한인’이라는 테두리에 머물러 자칫 ‘게토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¹⁵⁾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유기체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제는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라는 인식과 함께 다문화 사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해외 한인 교회의 경우 현지의 다양한 교회들 및 기관들과 보다 효과적인 협력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카이퍼가 비가시적이며 유기체적 교회를 강조한 것은 한국 교회의 예배당 건축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좋은 반성의 계기가 된다고 본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이며 교제이므로 이 믿음의 공동체(communitiy)가 함께 하나가(comm + unity)되고 모든 이단 및 비진리에 대해 진리를 수호하여 교회를 진리의 공동체로 보존하면서 인종과 언어 및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교회를 지향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카이퍼가 자율적 교회를 강조한 것은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였는데 이를 한국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가 정부에 대해 선지자적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교회 내적인 사역 이외에 대외적인 구제 및 봉사도 더욱 확충하여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카이퍼와 같이 진정한 개혁은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내적인 개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을 위해 분리된 교회나 교단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개 교회 및 교단별로 부흥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분열, 물질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및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구체적 열매를 맺어나갈 때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카이퍼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 부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가 말한 첫 번째 경우 즉,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라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직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많이 있고 성례가 자주 집행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잘못된 권징도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두 번째 경우, 즉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교 부분도 개혁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가령, 성경 본문 전체가 골고루 선포되기 보다는 일부 구절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교회력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행사에 치우치는 경우

14) 지난 2007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평양 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통합하기로 사전 로드맵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15) 필자는 독일에서 교파가 다른 네 교회가 통합된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성도들과 이웃 교회들을 섬기고 연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실제적으로 경험하였다. 출처, 하나됨의 비전 (서울: IVP, 2006) 참조.

를 자주 볼 수 있다. 가령 5월에 그리스도의 승천이나 성령강림주일이 간과되고 가정의 달에 관한 메시지가 주로 선포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설교를 강조하다보니 성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유럽의 개신교회들처럼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권징도 올바르게 이루어지 않아 개 교회 및 노회 심지어 총회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 비추어 올바르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아가 카이퍼의 불완전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현대 한국 교회를 볼 때 “파선될 위험성이 있는 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개혁되었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et semper reformanda)’가 되어야 한다. 일부 교회 리더들의 지나친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섬김과 소통의 민주주의적인 교회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개 교회의 민주성과 더불어 노회 및 총회도 일부 정치적인 인사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건전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카이퍼가 성경의 권위와 신앙고백의 권위를 강조한 것은 전혀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 교회 내에서는 교회내의 권위가 자칫 일부 지도자들의 몰상식적인 전횡의 정당방위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교회들이 부패하거나 스캔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령 재정적인 면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제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이퍼의 교회관은 현대 한국 교회의 성숙 이원론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이원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주일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예배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산제사가 되어야 함을 카이퍼는 강조한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적 문화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문과 신앙이 별개가 아니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통합될 때 개개 그리스도인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교회도 더욱 성숙하여지며 진정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III. 결론

카이퍼의 교회관 형성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초기 사상에서는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및 관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그가 칼빈주의로 회심한 이후 정치영역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의 교회론을 발전시켜 나중에는 제도적 교회와 유기체적 교회를 구분하게 되었다.

특히 그가 강조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론은 세속 문화를 변혁하고 기독교적 문화를 건설해나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직접 관련된다. 카이퍼가 일반 은총론 및 유기체적 교회론을 발전시킨 이유도 근본적으로 교회를 개혁함과 동시에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그의 큰 공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⁶⁾

하지만 그의 제도적이며 가시적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과연 한 교회의 양면일까? 제도로서의 교회를 가시적 유기체로서의 교회 옆에 두고 각각 다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실체로서

16) 카이퍼의 이러한 문화관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반응이 있었다. 가령 다우마(J. Douma), 캄프하우스(J. Kamphuis), 벨레마(W. H. Velema) 그리고 특히 스킬더(K. Schilder)의 평가에 대해서는 변종길,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 기독교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 『한석 오병세 총장 은퇴 기념 논문집』, 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1996, 197-212 참조.

교회의 개념적 통일성 및 연속성을 상실 또는 타협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말씀 선포 및 성례 집행의 제도적 교회와 삶을 변혁시키는 가시적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라는 공통 연대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는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대가 어느 정도 직접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교회의 개념을 협의 및 광의로 구분해 볼 때 카이퍼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러한 교회관을 발전시킨 근본적인 동기는 당시에 성경적 교훈에서 이탈한 네덜란드 개신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 교회를 사랑했고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는 간절하고도 ‘애통’하는 헌신적 중심이 있었다.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성장을 멈추고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한 모습 때문에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 교회 상황에 계속해서 새롭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마지막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특별히 세상 속에서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 좀 더 깊이 성찰하면서 실생활 가운데 구체적 열매로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Calvin, John.(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and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Chung, Kwang-Duk. (1999) *Ecclesiology and social ethics: A comparative study of the social and ethical life of the church in the views of Abraham Kuyper and Stanely Hauerwas*, Kampen: Drukkerij van den Berg.
- Kuyper, Abraham. (1862) *Disquisitio historico-theologica, exhibens Johannis Calvini et Joannis a Lasco de Ecclesia Sententiarum inter se compositionem*, Hague: M. Nyhoff.
- _____, (1873) *Confidentie*, Amsterdam: Hoveker & Zoon.
- _____, (1905) *Dictaten Dogmatiek*, Kampen: J.H. Kok.
- _____, (1909)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vol. 3, Kampen: J.H. Kok.
- _____, (1904-05) *E Voto Dordraceno, Toelichting op den Heidelbergschen Catechismus*, Vol. 2, Amsterdam/Pretoria/Potchefstroom.
- _____, (1931)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
- _____,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_____, (1883) *Tractaat van de Reformatie der Kerken*, Amsterdam: Hoveker & Zoon.
- Praamsma, 이상웅, 김상래 역, (2011) *L. Let Christ Be King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서울: 복 있는 사람
- Putchinger, G. (1987) *Abraham Kuyper: De jonge Kuyper (1837-1867)*, Franeker: Wever.
- Schleiermacher, Frederich. (1963) *The Christian Faith*, vol. 2, New York and Evanston: Harper and Row.
- Ten Hoor, F.M. (1890) *Afscheiding of Doleantie: in verband met het Kerkbegrip*, Leiden: Donner.
- Van den Berg, C.H.W. (1980) "Kerk en wereld in de theologie en wereldbeschouwing van Abraham Kuyper: Een historisch - systematische studie", *In Rapport met de Tijd: 100 jaar theologie aan de Vrije Universiteit* Kampen: Kok.
- _____, (1987) "Kuyper en de kerk", *Abraham Kuyper: Zijn volksdeel, zijn invloed.* eds. C. Augustijn, J.H. Prins, H.E.S. Woldring. Delft: Meinema.
- Vanden Berg, Frank. (1978) *Abraham Kuyper: a biography*, Ontario: Paideia. 김기찬 역, (1991) 「수상이 된 목사 아브라함 카이퍼」, 도서출판 나비.
- Van Leeuwen, P.A. (1946) *Het kerkbegrip in de theologie van Abraham Kuyper*, Franeker: Wever.

Velema, W.H. (1957) *De leer van de Heilige Geest bij Abraham Kuyper* 's-Gravenhage: Van Keulen.

Zwaanstra, H. (1974) "Abraham Kuyper's Conception of the Church", 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9, pp. 149-181.

변종길, (1996)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 기독교 학문에 대한 성경적 조망", 「한석 오병세 총장 은퇴 기념 논문집」, 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197-212.

정성구, (201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최용준, (2006) 「하나됨의 비전」, 서울: IVP.

최홍석, (1991) "카이퍼의 敎會本質 理解", 「교회와 신학」 총신출판부, pp. 170-191.

<http://www.prca.org/books/portraits/kuyper.htm>

<http://www.pkn.nl/1/info.aspx?page=6210>

ABSTRACT

Title: Abraham Kuyper's View of Church

Writer: Yong Joon (John) Choi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Abraham Kuyper's ecclesiology, especially focused on his view of the church as 'organism'. This article tries to trace how he has developed his view of the church through various ways. Ecclesiology was Kuyper's main concern in his first and last writings. Through this development, he tried to reform Dutch protestant church which is so called "Doleantie(mourning)". In the beginning he regarded organic church as invisible but later on he interpreted it more broadly, meaning 'forming Christian culture in every sphere of life.' This development is critically evaluated and applied to the modern context of Korean church.

Key words: Abraham Kuyper, church, organism, institution, reformation, unity with diversity